

#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Urban housewives' management  
behavior for the increase of their assets

동의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강혜경

Dept. of home management, Dong Eui University  
Instructor : Hye Kyoung Kang

## 目 次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분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s data to understand the urban housewives' assets management behavior.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more urban housewives were educated, the more they were satisfied with methods of assets management. So it turned out that the educational improvement of husbands and wives brought forth the satisfaction of their lives. From this result, we can conclude that more improved education is essential to us.

2. Specifically, age is an important factor of the reasons of assets management. Among housewives below 40 years old, the preparation for purchasing durable goods and more leisure was the main reason for assets management. Among housewives from 40 to 50, the preparation for expenditures of education and marriage of their children was the main reason. Among housewives above 50, the preparation for their retirement was the main reason.

As results, we can notice that they don't make a long-range plan positively but they usually prepare expenditures for their seasonable needs.

So we have to emphasize on educating them to make a long-range plan.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환경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가정은 초기 형태인 폐쇄경제로부터 주위환경이나 사회체계의 변화에 적응해나가기 위하여 개방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가정의 개방체계로의 전환은 가정관리행동을 통한, 새로운 체제하의 가정의 구성요소간에 발생하는 불균형의 조정을 필요로 한다.<sup>1)</sup>

가정관리행동은 그 기능에 따라 가정경제적 기능 노동분야와 시장경제적 분배분야로 구분되는데 가정경제적 기능노동분야는 가정내부에서 가족구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분야이고 시장경제적 분배분야는 가정의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을 적절히 분배하여 소득을 획득하고 또한 획득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최대의 욕구충족을 얻도록 행동하는 분야이다. 이 두 분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가정경제적 기능노동분야가 축소되고 시장경제적 분배분야가 확대되었다.<sup>2)</sup>

시장경제적 분배분야의 확대는 개방체계로서 가정의 경제적 기능을 부각시켰을 뿐 아니라 폐쇄체계하에서 가정경제의 생산 및 소비기능을 생산, 소비, 구매, 공급기능으로 세분화시켰고, 세분화의 경향은 가정경제의 교환범위 확대와 한편으로는 교환의 매개수단인 화폐의 개입으로 가정의 경제적 기능을 화폐의 조달·관리·사용의 기능으로 전환시켰다.<sup>3)</sup> 이렇게 전환된 가정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계는 소비자인 동시에 투자자이기도 하다. 소비자는 현재 소비를 위해 재화를 구매하는 한편, 소비되지 않은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및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여, 자산증식을 통해 미래소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비를 한다.<sup>4)</sup>

가정은 두 사람의 결혼으로 성립되어 긴 시간의 맥락속에서 유지되는 것이므로 일생에 걸친 소득흐름을 예상하고 소비흐름의 현재가치를 제약하면서 각 시기에 있어서의 소비 및 저축·투자 흐름을 결

정해야 한다.<sup>5)</sup> 그런데 이 소득과 소비의 흐름은 일생을 통하여 변화하며 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문제이므로 각 가정은 장기계획을 세워 현재의 소비흐름을 조절함으로써 미래의 소비에 대처해야 한다. 이때 미래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저축·투자이다.<sup>6)</sup>

가정의 목표가 구성원의 생존을 보존하고 인격을 완성하며 나아가 가정생활문화를 전달하거나 창조하는 것이라고 전제할 때, 가정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가정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조직하여 그의 구성원의 욕구를 가능한 최대로 만족시키도록 준비해야 한다.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의 확보 또는 가정생활 수준의 개선은 끊임없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남는 잉여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잉여의 가정자원은 가족구성원에게 생활변화에 대한 안전과 일반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능케 한다.<sup>7)</sup> 그러므로 가정의 복지와 목표달성, 안전을 위해 잉여의 가정자원확보를 위한 자산증식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문제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고도성장을 통해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불균형발전과 국민소득의 분배구조에 모순을 가져왔다.<sup>8)</sup> 이와함께 도시화에 따른 토지 및 주택수요의 가속적인 증대로 부동산거래가 복잡해지고 이에따라 많은 사고와 문제점을 일으켜 왔다.<sup>9)</sup>

이러한 여러 문제점하에서 우리나라 주부들은 자산증식을 이루기위한 경제적 행동을 수행하는데 위협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건전한 경제의식의 결핍과 불합리한 가치관 등의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합리적인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보다는 투기와 같은 불건전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 경제·사회적인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주부의 금융자산선택행동에 관한 연구<sup>10)</sup>를 기초로 하여 부산시 주부들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주부들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계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부산시 주부들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몽하는데 필요한 소비자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부산시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으며,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의 91%가 남편의 교육수준이 고졸이상이었고, 월평균가계소득별로는 조사대상의 84%가 100만원이상이었다. 이는 전반적인 조사대상의 생활수준 및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본 연구결과를 부산시 주부 전반에 걸쳐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 3. 용어의 정의

### (1)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

주부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행하는 경제적 행동으로서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계저축·투자를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 자산증식이 목적인 가계저축·투자를 위한 행동이란 직접적인 행동이 취해지는 면과 이런 직접적인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주부의 내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면을 포괄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산증식을 위한 저축·투자행동

자산(asset, 資産)이란 특정한 회계주체의 소유에 속하고 그 주체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형·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자산에는 현금과 같은 지불수단, 상품이나 건물같은 유형의 재화, 외상賣出金이나 특허권 같은 무형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sup>11)</sup>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증식을 통하여 가계 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해 가계관리는 필수불가결한 행동이다. 가계관리는 가정관리행동중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으로 간주되며,<sup>12)</sup> 또 한편으로 소득(earning), 저축(saving), 차입(borrowing), 대출(lending), 투자(investing), 보험(insuring), 지출(spending) 등의 의미를 가지고 내적·외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sup>13)</sup>

이러한 가계관리의 여러가지 경제적 행동가운데 가계저축행동과 가계투자행동을 살펴보면 저축(貯蓄·saving)이란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소비를 차감한 나머지를 말한다. 즉 가계저축이란 가계소득에서 가계소비지출을 뺀 나머지를 말하는 것으로 가계저축행동이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이다.<sup>14)</sup> 투자(投資, investment)란 공장·기계·건물·건축물이나 원료·제품의 재고, 주식같은 금융자산 등 소위 자본재에 해마다 추가되는 부분을 말하고 자본형성이라고도 한다. 가계투자란 생산요소를 요소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계경제수단을 생산과정에 투입함으로써 가정의 욕구충족의 목표에 기여하는 모든 지출을 의미한다.<sup>15)</sup> 이 경우 광의의 투자대상은 노동력, 토지, 자본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개념으로서의 협의의 가계투자는 인적 자원을 제외한 토지 및 자본(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그중에서도 자본투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sup>16)</sup> 결국 가계투자행동은 가계저축행동에 비해 적극적인 자산증식행동이며 가계관리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말하면 가계투자는 저축으로 형성된 화폐자본을 확대·재생산을 위하여 실물자본으로 투입·전환하는 경우와 저축 또는 기타 유사한 행위로 형성된 자본을 이자 및 배당 등의 수익을 목적으로 어떠한 투자객체 즉 금융자산에 투입하는 경우로 구별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케인즈의 저축 및 투자개념에 따르면<sup>17)</sup> 저축은 투자와 필연적으로 같아진다. 그래서 가계의 저축·투자행동은 가계가 자산증식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경제적 행동으로 간주되어진다.

### 2. 선행연구고찰

김광석<sup>18)</sup>의 연구에서는 가계저축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소득수준이고, 가정구성원규모, 도시규모, 도시평균소득, 가구주연령은 가계저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윤, 조대경<sup>19)</sup>은 저축행위는 다원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므로 저축율의 증대를 위하여 보다 장기적이며 광범위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배무기<sup>20)</sup>

는 근로자 가계를 대상으로 저축율이 가계의 소득수준 및 순자산규모, 가구주의 특성, 가족의 구성, 생활방식 및 소비관습, 저축의 개념, 금융제도의 인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연구결과 스스로의 총소득이 이웃보다 낮다고 생각할수록 저축을 더욱 많이 하고 있었으며, 자가소유 가구의 평균저축율이 다른 가구보다 높았다. 가구주의 직업이 전문·기술직, 행정 및 관리직인 경우 저축율은 높고, 사무 및 관련직, 생산직, 운수장비, 운전사, 단순노무자 등은 저축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수가 적을수록 저축율이 높았으며 가계에산을 작성하는 가계, 저축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계,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는 가계, 저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가계, 꼭 필요한 물자만을 구매하는 가계 일수록 평균저축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윤<sup>21)</sup>은 비근로자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수준과 저축율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가계의 저축율이 자가를 소유한 가계보다 높았으며 생활방식이나 소비관습은 가계의 저축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주<sup>22)</sup>의 연구결과 주부의 저축에 대한 태도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긍정적이었다. 또한 주부의 저축행동은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적이었다. 저축에 대한 태도와 저축행동간에는 상당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어 저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합리적인 저축행동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정영숙<sup>23)</sup>의 연구는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저축율이 높았고, 소득이 비교적 일정한 가계의 저축보유율 및 평균저축율이 높았다. 가계부를 쓰는 가계와 가계계획을 세우는 가계가 저축율이 높았고 소득계층별 저축율에서는 저축율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백설희<sup>24)</sup>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저축행동이 합리적이고 저축결정요인은 소득이며, 생활방식이나 소비습관은 가계의 저축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조희금<sup>25)</sup>에 의하면 가계의 평균저축율은 가정생활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형성기의 평균저축율이 가장 높고 후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며 대학기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다가 그 후에 다시 차츰 증가한다고 하였다. 문숙재<sup>26)</sup>의 연구에

서는 도시주부의 저축행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수인 소득수준, 소득의 규칙성, 주택의 소유여부, 가정생활주기, 교육수준보다는 사회심리적 변수인 저축의 필요성, 소비생활의 태도, 미래에 대한 전망 등과 더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저축에 대하여 이상의 8개 변수를 회귀분석한 결과 저축의 필요성, 미래에 대한 전망, 소득의 규칙성, 주택의 소유여부 등이 저축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희<sup>27)</sup>의 연구에서는 저축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득이며 저축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저축의 필요성·미래에 대한 전망 등의 사회심리적 변수이었다. 저축시에는 안정성, 환금성, 수익성이 차례로 고려되었고, 중요한 저축 동기는 예비적 동기, 거래적 동기, 투기적 동기의 순이었다. 저축의 가장 큰 목적은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자금 마련이었다.

Ferber<sup>28)</sup>는 저축의 결정에는 이용가능한 재정적 자원, 가정의 목적, 가정구성원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가족구성과 개인적인 경제조건 등의 변수들도 역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Hefferan, Colien<sup>29)</sup>은 가계 저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저축과 저축수준은 소득, 자산, 가정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저축패턴은 가정유형에 따라 다양하였고 저축의 결정에는 소득이 중요한 설명변수라고 하였다.

서울과 대전 주부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김순미<sup>30)</sup>의 연구에서는 금융자산선택행동을 금융자산예측행동, 효율적 Portfolio 분석행동, 최적 Portfolio 선택행동으로 분류했다(Portfolio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금융자산조합을 의미한다). 문제를 인식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지식·정보·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를 금융자산예측행동으로, 대안의 설정 및 대안의 가능성, 결과에 대한 숙고 및 평가단계는 효율적 Portfolio 분석행동으로, 최선의 대안의 선택 및 행동방법 수행단계는 최적 Portfolio 선택행동으로 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금융자산선택행동의 능력이 서울보다 대전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노출 및 관심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해석했다. 금융자산의 수익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일반가계가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지만 전문가 및 금융기관 관련자는 안정성 및 수익성

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저축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저축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규모가 증대될수록 저축율이 상승했고 미래에 대한 예견이 긍정적일수록 저축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저축율 관계를 살펴보면 대전보다 서울의 저축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축 및 투자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금융자산선택행동의 만족도는 투자결정자가 부부일때, 주택의 소유, 부부의 지적수준이 높으면, 그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연령이 낮은 집단을수록 금융자산의 축적에 대한 욕구가 크고 정보수집과 문제인지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 유무는 효율적 Portfolio분석행동에서만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대안을 선정하고 비교할 때 주택소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금융자산선택행동에 영향을 주는 준거집단은 가족보다는 전문가 및 금융기관관련자, 매스컴 등이며, 금융자산의 선택동기는 수익성과 편의성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금융자산예측행동에서는 결혼연수가 짧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미래에 대한 예견이 긍정적일수록,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잘 인지할수록, 준거집단의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예측행동수준이 높아졌다. 금융자산선택행동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인지로 나타났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 (연구문제 1)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은 배경변인(부부의 연령, 부부의 교육수준, 부부의 직업, 주택소유 유무, 월평균가계소득, 재산수준, 가계부작성상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가설 1)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은 남편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은 부인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은 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은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은 남편의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은 부인의 직업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은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8)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은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9)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은 재산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0)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은 가계부작성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측정도구의 선정 및 자료수집·처리

측정도구는 도시주부의 자산선택행동에 관한 연구<sup>30)</sup>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한 총 43문항으로서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 35문항, 배경변인 8문항(부채유무 포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은 저축·투자에 대한 습관, 자산증식방법(Crombach's  $\alpha=60$ ), 자산증식이유,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 정도, 준거집단의 영향내용, 자산증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산증식시 고려점 등 7개 하위영역을 두었으며 5점 척도로서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저축·투자에 대한 습관중 2·3문항은 역코딩하였음). 1990년 1월에 30부 예비조사를 거쳐 1월에서 2월에 걸쳐 부산시 주부 3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분포, 백분율, 산술평균을 구한뒤 t-test, F-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 Ⅳ. 연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빈도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변인	구 분	빈 도(%)
남편 의 연령	40세 미만	97(27.3)
	40세이상~50세미만	123(34.7)
	50세 이상	135(38.0)
	계	355(100.0)
부인 의 연령	40세 미만	120(33.8)
	40세이상~50세미만	106(29.9)
	50세 이상	129(36.3)
	계	355(100.0)
남편 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32( 9.0)
	고 졸	161(45.4)
	대졸이상	162(45.6)
	계	355(100.0)
부인 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89(25.1)
	고 졸	162(45.6)
	대졸이상	104(29.3)
	계	355(100.0)
남편 의 직업	전문·관리직	96(28.1)
	사무·기술직	96(28.1)
	자영상공업	150(43.8)
	계	※342(100.0)
부인의 직업 유무	유	108(30.4)
	무	247(69.6)
	계	355(100.0)
주택 소유 유무	유	251(70.7)
	무	104(29.3)
	계	355(100.0)
월 평균 가계 소득	100미만	57(16.0)
	100만원~200만원미만	139(39.2)
	200만원~300만원미만	83(23.4)
	300만원 이상	76(21.4)
	계	355(100.0)
변인	구 분	빈 도(%)
재산 수준	5,000만원 이하	124(34.9)
	5,001만원~10,000만원이하	111(31.3)
	10,001만원이상	120(33.8)
	계	355(100.0)
가계부 작성 상태	상(완전기록·검토·평가)	84(23.7)
	중(정확히 기록)	114(32.1)
	하(대강기록 또는 기록안함)	157(44.2)
	계	355(100.0)

※자료의 missing으로 합계에 차이가 있음.

## (1) 남편의 연령

40세미만, 40세이상부터 50세미만, 50세 이상으로 나누었을 때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2) 부인의 연령 —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 (3) 남편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9.0%, 고졸 45.4%, 대졸 45.6%로 남편의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은 경향을 보였다.

## (4) 부인의 교육수준

부인의 교육수준도 고졸이상이 74.9%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 (5) 남편의 직업

전문·관리직 28.1%, 사무·기술직 28.1%, 자영상공업 43.8%로서 단순노무자, 피고용기능공, 무직의 %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평균소득이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 (6) 부인의 직업유무

〈표 1〉과 같다.

## (7) 주택소유유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 70.7% 무소유 가정이 29.3%로 상당수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미만 16.0%, 100만원 — 200만원미만 39.2%, 20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23.4%, 300만원이상이 21.4%로 84.0%가 모두 100만원 이상의 가계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재산수준

5,000만원 이하가 34.9%, 5,001만원~10,000만원(1억)까지가 31.3%, 1억1만원 이상이 33.8%로 나타나, 65.1%가 5,001만원이상의 재산수준을 보여 상당히 높은 재산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10) 가계부 작성상태

가계부에 완전기록·검토·평가하는 주부가 23.7%, 지출내용, 지출액은 정확히 기록하는 주부가 32.1%, 지출내용만 적어놓거나 기록하지 않는 주부가 44.2%로 가계부를 기록한다고 볼 수 있는 주부가 55.8%로 나타났다.

2. 연구결과 및 분석

(1) 배경변인별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

배경변인별 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① 남편의 연령별로 본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

남편의 연령에 따라 저축·투자습관(P<.001), 자산증식방법(P<.001), 자산증식이유(P<.001), 준거집단의 영향정도(P<.01) 준거집단의 영향내용(P<.01), 자산증식시 고려점(P<.001)들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의 연령에 따라 저축·투자습관은 40세이상집단과 40세미만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40세이상 집단이 40세미만집단보다 더 합리적인 저축·투자습관을 나타내고 있다. 자산증식방법에서는 50세미만집단이 50세이상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50세미만층이 더 적극적인 자산증식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남편의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금융자산의 축적에 대한 욕구가 크고 정보수집과 문제인지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김 순미<sup>20)</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산증식이유에서는 40세이상~50세미만

<표 2> 배경변인과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

변인	구분	빈도(%)	자산 증식을 위한 행동							
			저축 투자 습관	자산 증식 방법	자산 증식 이유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정도	준거 집단의 영향내용	자산 증식시 영향요인	자산 증식시 고려점	
남편의 연령	40세미만	97(27.3)	4.1B	3.7A	3.0B	2.9A	3.0A	3.0	3.8A	
	40세이상~50세미만	123(34.7)	4.5A	3.8A	3.3A	2.9A	2.7B	3.2	3.4C	
	50세 이상	135(38.0)	4.6A	3.3B	2.8C	2.8B	2.8B	3.2	3.6B	
	계 및 F	355(100.0)	11.69***	10.35***	28.69***	6.82**	5.79**	2.80	13.54***	
부인의 연령	40세 미만	120(33.8)	4.1B	3.7A	3.11B	2.9A	2.9A	3.1	3.7A	
	40세이상~50세미만	106(29.9)	4.6A	3.8A	3.28A	2.9A	2.8	3.2	3.4B	
	50세 이상	129(36.3)	4.6A	3.2B	2.28C	2.8B	2.8	3.1	3.6B	
	계 및 F	355(100.0)	14.10***	11.43***	20.89***	5.16**	0.96	1.51	7.71***	
남편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32( 9.0)	4.6	2.7C	3.8	2.88AB	2.7	3.0B	3.5B	
	고 졸	161(45.4)	4.5	3.4B	3.1	2.83B	2.8	3.1AB	3.5B	
	대졸이상	162(45.6)	4.3	3.9A	2.9	2.99A	2.9	3.2A	3.7A	
	계 및 F	355(100.0)	2.65	26.91***	2.95	5.69**	1.35	3.14*	3.20*	
부인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89(25.1)	4.1B	2.2C	2.7B	2.7C	2.9	2.9B	3.5	
	고 졸	162(45.6)	4.6A	3.9B	3.1A	2.9B	2.8	3.2A	3.6	
	대졸이상	104(29.3)	4.4A	4.2A	3.0A	3.0A	2.8	3.2A	3.7	
	계 및 F	355(100.0)	7.75***	401.11***	14.46***	10.19***	1.70	16.31***	2.17	
남편의 직업	전문·관리직	96(28.1)	4.7A	3.9A	3.1A	3.0	2.6	3.3A	3.7	
	사무·기술직	96(28.1)	4.2B	3.4B	2.9B	2.9	2.5	3.1B	3.6	
	자영 상공업	150(43.8)	4.4B	3.4B	3.1A	2.8	2.7	3.0B	3.5	
	계 및 F	342(100.0)	6.85**	9.82***	3.73*	2.87	2.23	12.77***	2.35	
부인의 직업	유 무	108(30.4)	4.4	3.6	3.3	2.9	2.7	3.0	3.5	
	유 무	247(69.6)	4.4	3.6	2.9	2.9	2.9	3.2	3.6	
	유무	계 및 t	355(100.0)	0.09	0.18	6.33***	0.60	1.81	4.67***	2.09*
	주력 소유	유 무	251(70.7)	4.6	3.5	3.0	2.9	2.8	3.2	3.5
유·무	유 무	104(29.3)	4.0	3.7	3.1	2.8	2.9	3.1	3.7	
	계 및 t	355(100.0)	4.67***	1.98*	1.90	2.84**	0.83	1.46	3.12**	
	월평균 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57(16.0)	4.2B	2.7C	2.7C	2.6C	3.1A	2.9C	3.6
		100만원~200만원	139(39.2)	4.4BC	3.7B	2.9B	2.8B	2.7B	3.1B	3.6
200만원~300만원		83(23.4)	4.6A	4.0A	3.2A	3.0A	2.9B	3.3A	3.6	
300만원 이상		76(21.4)	4.5A	3.6B	3.2A	3.0A	2.7B	3.2B	3.6	
계 및 F		355(100.0)	19.29***	7.82***	9.92***	8.66***	5.58***	10.04***	0.15	
재산 수준	5,000만원 이하	124(34.9)	4.1B	3.3B	3.0A	2.8B	3.0A	3.0B	3.8A	
	5,001만원~10,000만원이하	111(31.3)	4.7A	3.5A	2.9B	2.9A	2.8B	3.1A	3.4B	
	10,001만원	120(33.8)	4.6A	3.8A	3.2A	2.9A	2.7B	3.3A	3.5B	
	계 및 F	355(100.0)	19.29***	7.82***	7.22***	3.75*	7.77***	11.44***	11.63***	
가계부 작성 상태	상(완전기록·검토·평가)	84(23.7)	4.6A	3.3	3.0	2.9A	2.5	3.1	3.4B	
	중(정확히 기록)	114(32.1)	4.4B	3.4	3.1	2.9A	2.6	3.1	3.6B	
	하(대강기록 또는 기록안함)	157(44.2)	4.4B	3.4	3.0	2.8B	2.6	3.1	3.7A	
	계 및 F	355(100.0)	3.02*	1.41	0.62	3.44*	0.61	0.32	5.05**	

\*자료의 missing으로 합계에 차이가 있음

\*...P<.05    \*\*...P<.01    \*\*\*...P<.001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가장 여러가지 자산 증식 이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표 3 참조> 자녀교육·결혼비용마련에 40세 이상~50세미만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노후생활대책마련에는 50세이상집단이 내구소비재·여가비용마련에는 40세미만집단이 각각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정도에서

는 50세미만집단과 50세이상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50세미만집단이 50세이상집단보다 준거집단의 영향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4>와 같다.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내용에서는 40세미만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가장 많이 준거집단으로부터 여러가지 자산증식정보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5>

<표 3> 배경변인과 자산증식 이유

변인	구분	빈도(%)	하위영역					계
			자녀교육 결혼비용	노후생활 대 책	내구소비재 여가비용	부채상환		
남편의 연령	40세 미만	97(27.3)	3.6B	4.1B	2.9A	1.3	3.0B	
	40세이상~50세미만	123(34.7)	4.5A	4.5B	2.8A	3.3A	3.28A	
	50세 이상	135(38.0)	3.0C	4.7A	2.0B	1.4	2.8C	
	계 및 F	355(100.0)	29.80***	9.13***	12.21***	0.08	28.69***	
부인의 연령	40세 미만	120(33.8)	3.8B	4.1B	3.0A	1.4	3.11B	
	40세이상~50세미만	106(29.9)	4.4A	4.5B	2.7A	1.3	3.28A	
	계 및 F	355(100.0)	25.24***	8.17***	12.01***	0.26	20.89***	
부인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89(25.1)	3.0B	4.5AB	2.1B	1.4	2.7B	
	고 졸	162(45.6)	3.9A	4.6A	2.8A	1.4	3.1A	
	대졸이상	104(29.3)	4.0A	4.2B	2.7A	1.2	3.0A	
	계 및 F	355(100.0)	11.81***	3.23*	5.02**	2.21	14.46***	
남편의 직업	전문·관리직	96(28.1)	4.0A	4.5	2.8	1.1B	3.1A	
	사무·기술직	96(28.1)	3.3B	4.2	2.6	1.4A	2.9B	
	자영상공업	150(43.8)	3.8A	4.6	2.4	1.4A	3.1A	
	계 및 F	※342(100.0)	5.65**	2.68	1.19	4.65*	3.73*	
부인의 직업 유·무	유	108(30.4)	4.3	4.7	2.5	1.6	3.3	
	무	247(69.6)	3.4	4.3	2.6	1.2	2.9	
	계 및 t	355(100.0)	5.17***	3.16**	0.37	3.43***	6.33***	
월평균 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57(16.0)	3.0B	4.7A	1.4B	1.8A	2.7C	
	100만원~200만원미만	139(39.2)	3.5B	4.2B	2.7B	1.4A	2.9B	
	200만원~300만원미만	83(23.4)	4.0A	4.6A	3.0A	1.1B	3.2A	
	300만원 이상	76(21.4)	4.2A	4.7A	2.6B	1.2B	3.2A	
	계 및 F	355(100.0)	7.85***	5.51***	12.07***	7.52***	9.92***	
재산 수준	5,000만원 이하	124(34.9)	3.5B	4.2B	2.5	1.6A	3.0A	
	5,001만원~10,000만원이하	111(31.3)	3.4B	4.5AB	2.3	1.4A	2.9B	
	1,001만원 이상	120(33.8)	4.1A	4.7A	2.8	1.1B	3.2A	
	계 및 F	355(100.0)	6.50**	5.40**	2.48	9.74***	7.22***	

※자료의 missing으로 합계에 차이가 있음

\*\*\*P<.05    \*\*...P<.01    \*\*\*...P<.001



와 같다. 자산증식시 고려점에서는 40세미만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가장 여러가지 고려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7참조> 수

익성 고려는 40세이상~50세미만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환금성 고려는 40세미만집단이, 융자 조건 각종혜택고려는 40세미만집단이 각각 가장 높

<표 4> 배경변인과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정도

변인	구분	하위영역 빈도(%)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정도				
			가 족	이웃· 직장동료	전문가	매스콤	계
남편의 연령	40세 미만	97(27.3)	3.8	3.0B	2.6	2.3A	2.9A
	40세이상~50세미만	123(34.7)	3.6	3.5리	2.8	1.8B	2.9A
	50세 이상	135(38.0)	4.0	2.9B	2.4	1.7B	2.8B
	계 및 F	355(100.0)	1.63	720***	3.00	14.57***	6.82**
부인의 연령	40세 미만	120(33.8)	3.8AB	3.1B	2.7AB	2.2B	2.9A
	40세이상~50세미만	106(29.9)	3.5B	3.5A	2.9A	2.8A	2.9A
	계 및 F	355(100.0)	4.08*	7.49***	4.65*	9.17***	5.16**
남편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32( 9.0)	4.5A	3.2	2.0C	1.7B	2.88AB
	고 졸	161(45.4)	3.9B	3.1	2.5B	1.7B	2.83B
	대졸이상	162(45.6)	3.5B	3.2	2.7A	2.2A	2.99A
	계 및 F	355(100.0)	5.40**	0.38	7.04***	13.28***	5.69**
부인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89(25.1)	4.2A	2.9	2.1B	1.6B	2.7C
	고 졸	162(45.6)	3.7B	3.2	2.7A	1.8B	2.9B
	대졸이상	104(29.3)	3.5B	3.2	2.9A	2.4A	3.0A
	계 및 F	355(100.0)	5.14**	1.58	9.73***	18.78***	10.19***
주택 소유 유·무	유	251(70.7)	4.0	3.3	2.5	1.9	2.9
	무	104(29.3)	3.2	2.8	3.0	2.0	2.8
	계 및 t	355(100.0)	4.33***	2.77**	3.50***	1.24	2.84**
월평균 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57(16.0)	4.2	2.6B	2.1B	1.7	2.6C
	100만원~200만원미만	139(39.2)	3.6	3.2A	2.7B	1.9	2.8B
	200만원~300만원미만	83(23.4)	3.7	3.3A	2.8A	1.9	3.0A
	300만원 이상	76(21.4)	3.9	3.3A	2.7A	2.1	3.0A
	계 및 F	355(100.0)	2.25	4.31**	3.39*	1.99	8.66***
재산 수준	5,000만원 이하	124(34.9)	3.7	3.0	2.6B	1.9	2.8B
	5,001만원~10,000만원이하	111(31.3)	3.9	3.2	2.4B	1.8	2.9A
	10,001만원 이상	120(33.8)	3.7	3.2	2.8A	2.0	2.9A
	계 및 F	355(100.0)	0.61	1.58	2.35*	1.03	3.75*
가계부 작성 상태	상(완전기록, 검토 평가)	84(23.7)	3.7AB	3.3	2.7	1.9AB	2.9A
	중(정확히 기록)	114(32.1)	4.1A	3.1	2.4	2.1A	2.9A
	하(대강기록 또는 기록안함)	157(44.2)	3.6B	3.1	2.7	1.8B	2.8B
	계 및 F	355(100.0)	3.46*	0.59	2.22	3.82*	3.44*

※자료의 missing으로 합계에 차이가 있음

\*...P<.05    \*\*...P<.01    \*\*\*...P<.001

〈표 5〉 배경변인과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내용

변인	구분	빈도(%)	하위영역				
			금융기관 자산종류	수익율 유동성 안정성	증식방법	증식시기	계
남편의 연령	40세 미만	97(27.3)	3.6A	3.6A	2.8	1.9B	3.0A
	40세이상~50세미만	123(34.7)	2.9B	3.5A	2.8	1.7B	2.7B
	50세 이상	135(38.0)	3.0B	2.9B	3.0	2.2A	2.8B
	계 및 F	355(100.0)	3.74*	5.28**	0.40	4.12*	5.79**
월평균 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57(16.0)	3.2	3.1	3.4A	2.7A	3.1A
	100만원~200만원미만	139(39.2)	3.2	3.4	2.7BC	1.6C	2.7B
	200만원~300만원미만	83(23.4)	2.9	3.4	3.2B	2.0BC	2.9B
	300만원 이상	76(21.4)	3.2	3.1	2.5C	2.1B	2.7B
계 및 F	355(100.0)	0.70	0.82	3.75*	8.72***	5.58***	
재산 수준	5,000만원 이하	124(34.9)	3.2	3.5	3.0	2.1	3.0B
	5,001만원~10,000만원이하	111(31.3)	3.3	3.1	2.9	1.8	3.1A
	10,001만원 이상	120(33.8)	2.8	3.2	2.7	2.0	3.3A
	계 및 F	355(100.0)	2.30	1.58	1.04	1.72	11.44***

\*...P&lt;.05    \*\*...P&lt;.01    \*\*\*...P&lt;.001

은 점수를 보였다.

이상에서 남편의 연령이 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긍정되었다.

② 부인의 연령별로 본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

부인의 연령에 따라 저축·투자습관(P<.001), 자산증식방법(P<.001), 자산증식이유(P<.001), 준거집단의 영향정도(P<.01), 자산증식시 고려점(P<.001)들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축·투자습관에서는 40세 이상집단과 40세미만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40세이상집단이 더 합리적인 저축·투자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증식방법에서는 50세미만집단과 50세이상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50세미만집단이 더 적극적인 자산증식방법을 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자산증식이유에서는 40세이상~50세미만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가장 여러가지 자산증식이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표 3 참조> 자녀교육·결혼비용마련에 40세이상~50세미

만집단이, 노후생활대책마련에 50세이상집단이, 내구소비재·여가비용마련에 40세미만집단이 각각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준거집단의 영향정도에서는 50세미만집단과 50세이상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50세미만집단이 50세이상집단보다 준거집단의 영향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4>와 같다. 자산증식시 고려점에서는 40세미만집단과 40세이상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40세미만집단이 40세이상집단보다 더 많은 고려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7>과 같다.

이상에서 부인의 연령은 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설 2)는 긍정되었다.

③ 남편의 교육수준별로 본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

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산증식방법(P<.001),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정도(P<.01), 자산증식시 영향을 주는 요인(P<.05), 자산증식시 고려점(P<.05)들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2>

〈표 6〉 배경변인과 자선증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인	하위영역		자선증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선의 양도성	계	
	구분	빈도(%)	인플레이션	이차항의 변 회	세금절약	정보획득 노력절약			전문가의 도움
남편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32(9.0)	3.7B	3.6B	2.8	2.2	2.0B	3.5A	3.0B
	고졸	161(45.4)	4.2A	3.8B	3.0	2.1	2.5AB	2.8B	3.1AB
	대졸이상	162(45.6)	4.3A	4.2A	3.0	2.2	2.7A	2.8B	3.2A
	계 및 F	355(100.0)	8.50***	6.86**	0.52	0.05	3.60*	4.15*	3.14*
부인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89(25.1)	3.7B	3.6C	2.7B	2.2	2.0B	3.2A	2.9B
	고졸	162(45.6)	4.4A	4.1B	3.1A	2.1	2.7A	2.8B	3.2A
	대졸이상	104(29.3)	4.4A	4.3A	3.0AB	2.2	2.8A	2.6B	3.2A
	계 및 F	355(100.0)	28.56***	17.10***	3.12*	0.40	12.83***	5.80**	16.31***
남편의 직업	전문·관리직	96(28.1)	4.4A	4.3A	3.3A	2.4	3.0A	2.7	3.3A
	사무·기술직	96(28.1)	4.1B	3.9B	3.1AB	2.1	2.4B	2.9	3.1B
	자영업·상업	150(43.8)	4.1B	3.9B	2.8B	2.1	2.4B	2.9	3.0B
	계 및 F	342(100.0)	3.32*	4.74**	5.99**	2.88	6.83**	1.04	12.77***
부인의 직업 유무	유	108(30.4)	4.3	4.2	2.7	1.8	2.4	2.5	3.0
	무	247(69.6)	4.2	3.9	3.1	2.3	2.6	3.0	3.2
	계 및 t	355(100.0)	1.30	2.74**	3.18**	6.43***	1.48	3.49***	4.67***
	월평균	100만원 미만	57(16.0)	3.9B	3.7C	2.2B	2.1	2.1C	3.5A
소득	100만원~200만원 미만	139(39.2)	4.1A	3.9B	3.1A	2.1	2.6AB	2.8B	3.1B
	200만원~300만원 미만	83(23.4)	4.4A	4.3A	3.2A	2.3	3.0A	2.8B	3.3A
	300만원 이상	76(21.4)	4.3A	4.2A	3.2A	2.3	2.4B	2.6B	3.2B
재산 수준	계 및 F	355(100.0)	5.00**	8.32***	9.90***	1.21	6.26***	5.93***	10.04***
	5,000만원 이하	124(34.9)	4.1B	3.9B	2.7B	2.0B	2.7B	2.7A	3.0B
	5,001만원~10,000만원 이하	111(31.3)	4.0B	3.8B	3.1A	2.2AB	2.3B	3.1A	3.1A
	10,001만원 이상	120(33.8)	4.4A	4.3A	3.2A	2.3A	2.6AB	2.9AB	3.3A
계 및 F	355(100.0)	8.49***	8.27***	7.77***	3.95*	3.03*	3.54*	11.44***	

\*자료를 missing으로 합계에 차이가 있음

\*...P<.05 \*\*...P<.01 \*\*\*...P<.001

〈표 7〉 배경변인과 자산증식시 고려점

변인	구분	하위영역 빈도(%)	자산증식시 고려점				
			수익성	환금성	안정성	융자조건 각종혜택	계
남편의 연령	40세 미만	97(27.3)	4.3B	3.5A	4.3	3.2A	3.8A
	40세이상~50세미만	123(34.7)	4.6A	2.2C	4.3	2.6B	3.4C
	50세 이상	135(38.0)	4.4AB	3.2B	4.2	2.7B	3.6B
	계 및 F	355(100.0)	3.93*	31.48***	0.29	5.97**	13.54***
부인의 연령	40세 미만	120(33.8)	4.3B	3.3A	4.3	3.1A	3.7A
	40세이상~50세미만	106(29.9)	4.6A	2.3B	4.3	2.6B	3.4B
	50세 이상	129(36.3)	4.3B	3.2A	4.2	2.6B	3.6B
	계 및 F	355(100.0)	4.99**	19.97***	0.55	4.21*	7.71***
남편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32( 9.0)	4.2	3.2	4.3	2.2B	3.5B
	고 졸	161(45.4)	4.4	2.7	4.2	2.7AB	3.5B
	대졸이상	162(45.6)	4.5	3.1	4.2	2.9A	3.7A
	계 및 F	355(100.0)	1.83	3.00	0.01	3.05*	3.20*
부인의 직업 유·무	유	108(30.4)	4.5	2.5	4.2	2.7	3.5
	유	247(69.6)	4.4	3.1	4.2	2.8	3.6
	계 및 t	355(100.0)	1.93	4.12***	0.16	0.82	2.09*
주택 소유 유·무	유	251(70.7)	4.4	2.9	4.2	2.6	3.5
	무	104(29.3)	4.4	3.1	4.3	3.2	3.7
	계 및 t	355(100.0)	0.25	1.72	0.68	3.22**	3.12**
재산 수준	5,000만원 이하	124(34.9)	4.3	3.4A	4.3	3.1A	3.8A
	5,001만원~10,000만원이하	111(31.3)	4.4	2.8B	4.2	2.4B	3.4B
	10,001만원 이상	120(33.8)	4.5	2.6B	4.2	2.8A	3.5B
	계 및 F	355(100.0)	1.43	12.06***	0.72	4.06*	11.63***
가계부 작성 상태	상(완전기록, 검토, 평가)	84(23.7)	4.3	2.8	3.8C	2.7AB	3.4B
	중(정확히 기록)	114(32.1)	4.5	2.9	4.5A	2.5B	3.6B
	하(대강기록 또는 기록안함)	157(44.2)	4.4	3.0	4.2B	3.0A	3.7A
	계 및 F	355(100.0)	1.22	0.94	17.06***	3.56*	5.05**

\*...P&lt;.05    \*\*...P&lt;.01    \*\*\*...P&lt;.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산증식방법은 대졸이상집단과 고졸집단, 중졸이하집단의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졸이상집단이 가장 적극적인 자산증식방법을 행하고 있고, 고졸집단, 중졸이하집단의 순으로 소극적으로 되었다.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정도에서는 대졸이상집단과 고졸집단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대졸이상집단이 고졸집단보다 준거집단의 영향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4 참조〉 가족의 영향은 중졸이하집단이, 전

문가의 영향은 대졸이상집단이, 매스컴의 영향은 대졸이상집단이 각각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자산증식시 영향요인에서는 대졸이상집단과 중졸이하집단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졸이상집단이 중졸이하집단보다 더 많은 영향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하위영역에서는 〈표 6〉과 같다. 자산증식시 고려점에서는 대졸이상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가장 많은 고려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7〉과 같다.

이상으로, 남편의 교육수준이 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은 긍정되었다.

④ 부인의 교육수준별로 본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저축·투자습관( $P<.001$ ), 자산증식방법( $P<.001$ ), 자산증식이유( $P<.001$ ),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정도( $P<.001$ ), 자산증식시 영향요인( $P<.001$ )들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축·투자습관은 고졸이상집단이 중졸이하집단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고졸이상집단이 더 합리적인 저축·투자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저축행동이 합리적이었다는 송영주<sup>39)</sup>와 백설희<sup>40)</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산증식방법에서는 대졸이상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대졸이상집단, 고졸집단, 중졸이하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인 자산증식방법을 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산증식이유에서는 고졸이상집단과 중졸이하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고졸이상집단이 중졸이하집단보다 더 여러가지 자산증식이유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3>과 같다. 준거집단의 영향정도에서는 대졸이상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준거집단의 영향정도가 대졸이상집단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4>와 같다. 자산증식시 영향요인에서는 고졸이상집단과 중졸이하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고졸이상집단이 중졸이하집단보다 더 많은 영향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6>과 같다.

이상으로 부인의 교육수준이 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4>는 긍정되었다.

⑤ 남편의 직업별로 본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는 저축·투자습관( $P<.01$ ), 자산증식방법( $P<.001$ ), 자산증식이유( $P<.05$ ), 자산증식시 영향요인( $P<.001$ )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축·투자습관은 전문·관리직집단이 사무·기술직집단과 자영상공업집단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전문·관리직집단이 사무·기술직집단이나 자영상공업집단보다 더 합리적인 저축·투자습관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산증식방법에서는 전문·관리직집단이 사무·기술직집단, 자영상공업집단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전문·관리직집단이 사무·기술직집단과 자영상공업집단보다 더 적극적인 자산증식방법을 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자산증식이유에서는 전문·관리직집단과 자영상공업집단이 사무·기술직집단과의 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전문·관리직집단과 자영상공업집단이 사무·기술직집단보다 더 많은 영향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3>과 같다. 자산증식시 영향요인에서는 전문·관리직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가장 많은 영향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표 6>과 같다.

이상으로 남편의 직업이 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5>는 긍정되었다.

⑥ 부인의 직업유무별로 본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

부인의 직업 유·무에 따라 자산증식이유( $P<.001$ ), 자산증식시 영향요인( $P<.001$ ), 자산증식시 고려점( $P<.05$ )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왔다. <표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산증식이유에서는 직업있는 주부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3>과 같다. 자산증식시 영향요인( $P<.001$ )에서는 직업없는 주부가 직업있는 주부보다 더 많은 영향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6>과 같다. 자산증식시 고려점에서는 직업없는 주부가 직업있는 주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7>과 같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부인의 직업유무가 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설 6>은 긍정되었다.

⑦ 주택소유유·무별로 본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 주택소유유·무에 따라 저축·투자습관( $P<.001$ ), 자산증식방법( $P<.05$ ),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정도( $P<.01$ ), 자산증식시 고려점( $P<.01$ )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축·투자습관은 주택소유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주택소유집단이 무주택집단보다 더 합리적인 저축·투자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증식방법에서는 무주택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여 무주택집단이 더 적극적인 자산증식방법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 순미<sup>35)</sup>의 무주택집단이 자산증식방안을 선정하고 비교할 때 더 적극적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정도에서는 주택소유집단이 무주택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주택소유집단이 준거집단의 영향정도를 더 크게 받는 것을 나타낸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4>와 같다. 자산증식시 고려점에서는 무주택집단이 소유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7 참조> 용자조건·각종혜택에 무주택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주택의 소유유·무가 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설 7)은 긍정되었다.

#### ⑧ 월평균가계소득별로 본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라 저축·투자습관(P<.05), 자산증식방법(P<.001), 자산증식이유(P<.001),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정도(P<.001),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내용(P<.001), 자산증식시 영향요인(P<.001)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축·투자습관은 200만원미만집단과 200만원 이상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00만원이상집단이 200만원미만집단보다 더 합리적인 저축·투자습관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김광석,<sup>36)</sup> 박재윤,<sup>37)</sup> 백설희,<sup>38)</sup> 박순희<sup>39)</sup>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합리적인 저축·투자습관을 갖고있다고 유추된다. 자산증식방법은 200만원·300만원집단과 100만원·200만원미만집단, 300만원이상집단, 그리고 100만원미만집단의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산증식이유에서는 200만원 이상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가장 많은 자산증식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표 3>과 같다.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정도에서는 200만원이상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가장 준거집단의 영향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4>와 같다. 준거집단의 영향내용에서는 100만원미만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가장 많은 자산증식정보내용을 준거집단으로부터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5>와 같다. 자산증식시 영향요인에서는 200만원·300만원미만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가장 많은 영향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6>과 같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월평균가계소득이 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설 8)은 긍정되었다.

#### ⑨ 재산수준별로 본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

재산수준에 따라 저축·투자습관(P<.001), 자산증식방법(P<.001), 자산증식이유(P<.001),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정도(P<.05), 준거집단의 영향내용(P<.001), 자산증식시 영향요인(P<.001), 자산증식시 고려점(P<.001)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축·투자습관은 5001만원 이상집단과 5000만원이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5001만원 이상 집단이 더 합리적인 저축·투자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재산수준이 클수록 저축율이 상승한다는 김순미<sup>40)</sup>의 연구결과로부터 유추된다. 자산증식방법은 5001만원 이상집단과 5000만원이하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5001만원이상집단이 더 적극적인 자산증식방법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이 많을수록 문제인식과 금융자산에 대한 지식·정보·자료를 더 많이 수집한다는 김순미<sup>41)</sup>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자산증식이유에서는 1억1만원이상집단과 5000만원이하집단이 가장 많은 자산증식이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로는 <표 3>과 같다.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정도에서는 5001만원이상집단이 5000만원이하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준거집단의 영향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4>와 같다. 준거집단의 영향내용에서는 5000만원이하집단이 5001만원이상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5000만원이하집단이 더 많은 자산증식정보를 준거집단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5>와 같다. 자산증식시 영향요인에서는 5001만원이상집단이 가장 영향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6>과 같다. 자산증식시 고려점에서는 5000만원이하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가장 많은 고려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7>과 같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재산수준이 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설 9)는 긍정되었다.

#### ⑩ 가계부작성상태별로 본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

가계부작성상태에 따라 저축·투자습관( $P<.05$ ),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정도( $P<.05$ ), 자산증식시 고려점( $P<.01$ )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축·투자습관은 가계부작성상태가 상(완전기록, 검토, 평가)인 집단이 중집단(지출내용, 지출액은 정확히 기록), 하집단(대강기록, 또는 기록안함)과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계부작성상태가 상집단이 중·하집단보다 더 합리적인 저축·투자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부작성가계가 저축율이 높았다는 정영숙<sup>49)</sup>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자산증식시 준거집단의 영향정도에서는 상·중집단이 하집단보다 준거집단의 영향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4>와 같다. 자산증식시 고려점에서는 하집단이 상·중집단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하집단이 가장 많은 고려점을 가진 것을 나타낸다. 하위영역별로는 <표 7>과 같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가계부작성상태가 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설 10)은 긍정되었다.

## V. 결 론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남편·부인의 연령에 따른 자산증식행동을 살펴보면, 자산증식방법에서는 남편·부인 모두 50세 미만집단이 50세이상집단보다 더 적극적인 자산증식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40세미만집단은 경제적 준비단계로서, 40세이상-50세미만집단의 경우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시기이므로 적극

적인 자산증식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50세 이상집단은 정리 및 은퇴의 단계로서 소극적인 자산증식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산증식 이유에서는 남편·부인 모두 40세이상-50세미만집단은 자녀교육 및 결혼비용마련이, 50세이상집단은 노후생활대책마련이, 40세미만집단은 내구소비재 및 여가비용마련이 가장 큰 자산증식 이유들이었다. 이는 가족생활주기에서 각 연령층이 처한 필요를 반영하는 결과라 추측된다. 자산증식시 고려점에서는 40세미만집단이 40세이상집단보다 더 많은 고려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연령이 젊은 집단일수록 자산증식시 정보수집 및 문제인지에 더 적극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을 통해 남편·부인의 연령이 젊을수록 전반적으로 더 활발한 자산증식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남편·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산증식행동을 살펴보면 자산증식방법에서는 남편·부인 모두 대졸이상집단이 가장 적극적인 자산증식방법을 취하고 있었고, 고졸집단·중졸이하집단의 순으로 소극적이 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자산증식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남편의 직업별로 본 자산증식행동을 살펴보면 저축·투자습관에서는 전문·관리직집단이 사무·기술직집단이나 자영상공업집단보다 더 합리적인 저축·투자습관을 보였다. 자산증식방법에서는 전문·관리직집단이 사무·기술직집단과 자영상공업집단보다 더 적극적인 자산증식방법을 행하고 있었다. 자산증식시 영향요인은 전문·관리직집단이 타집단보다 가장 많은 영향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을 통해 전문·관리직집단이 사무·기술직집단과 자영상공업집단보다 더 활발한 자산증식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4) 월평균가계소득별로 본 자산증식행동을 살펴보면, 자산증식방법에서는 월평균가계소득이 200만원-300만원미만집단과 300만원이상집단이 더 적극적인 자산증식방법을 취하고 있었고, 200만원 미만집단이 소극적이었다. 자산증식이유에서는 200만원이상집단이 200만원이하집단보다 더 많은 자산증식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자산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는 200만원-300만원미만집단이 인플레이션, 이

자율의 변화, 세금절약, 전문가의 도움들의 여러요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상을 통해 200만원이상집단이 200만원이하집단보다 더 활발한 자산증식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5) 재산수준별로 본 자산증식행동을 살펴보면, 저축·투자습관에서는 5001만원이상집단이 5000만원이하집단보다 더 합리적인 저축·투자습관을 보였다. 자산증식방법에서는 5001만원이상집단이 더 적극적인 자산증식방법을 행하고 있었다. 자산증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는 5001만원이상집단이 5000만원이하집단보다 더 많은 영향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을 통해 재산수준이 높을수록(5001만원이상집단) 더 활발한 자산증식행동을 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5000만원이하집단도 준거집단의 영향내용과 자산증식시 고려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나름대로의 자산증식행동을 활발히 행한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론을 소비자교육적 측면에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령별로 40세미만집단은 내구소비재·여가비용마련이 가장 큰 자산증식의 이유였고, 50세이상집단은 노후생활대책마련이, 40세이상-50세미만집단은 자녀교육 및 결혼비용마련이 가장 큰 자산증식의 이유였는데, 이는 장기적인 계획아래 자산증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필요한 자금마련에 급급한 현상을 나타내므로 주부들의 장기생활계획과 그에 따른 장기자금마련계획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1) Unterkircher, Elke Hack, 「Der Organisierbare Haushalt:Grundlagen der Einzelwirtschaftslehre des Privaten Haushalts」, Essen:Girardet, 1976:S. 51.
- 2) 문숙재, 「기술발전과 가정」, 「제6회 아여연 심포지움, 기술발전과 여성」,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86, p. 16.
- 3) Unterkircher, 1976, SS. 95-96.
- 4) 김순미, 「도시주부의 금융자산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이대박사논문, 1987, p. 13.
- 5) 김병주, 「저물가 저금리시대의 가계저축」, 「주제 발표 논문집:80년대의 내자동원에 관한 심포지움」, 서울:저축추진중앙위원회, p. 56.
- 6) 문숙재, 「도시주부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논총」 제46집, 한국문화연구원, 1985, pp. 237-238.
- 7) ———,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본 가정의 안정기능」, 대한가정학회지, 제21권 4호, 1983, p. 112.
- 8) 이기춘, 「가정경제학」, 서울:교문사, 1985, pp. 50-51.
- 9) 이만기, 「한국경제론」, 서울:일신사, 1989, p. 465.
- 10) 김순미, 1987.
- 11) 「신경제학 사전」,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편, 대학당, 1976, p. 1302.
- 12) Egner, E.:Hauswirtschaft und Lesenshaltung Berlin, 1974, S. 41.
- 13) Nickell, Rice & Tucker, 「Management in Family Living」, 5th ed., rev., New York:John Wiley and Sons, Inc., 1976, pp. 279-320.
- 14) 「신경제학사전」, 1976, pp. 1370-1371.
- 15) Unterkircher, 1976, SS. 108-109.
- 16) 김순미, 1987, p. 10.
- 17) 「신경제학사전」, 1976, p. 1371.
- 18) 김광석, 「한국가계의 저축형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총서, 제4집, 서울:한국개발연구원, 1975.
- 19) 박재윤, 조대경, 「한국인의 저축행위에 관한 연구:국내저축의 결정요인과 가계의 저축형태」, 「사회과학 연구보고 I」,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77, pp. 1-133.
- 20) 배무기, 「서울 근로자가계의 저축형태」, 「경제논집」, 제17권 2호, 서울대 경제연구소, 1978, pp. 161-196.
- 21) 박재윤, 「서울 비근로자가계의 저축형태」, 「경제논집」, 제17권 2호, 서울대 경제연구소, 1978, pp. 197-235.
- 22) 송영주, 「서울시 주부의 저축에 대한 태도와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1.
- 23) 정영숙, 「마산지역 가계저축형태에 관한 조사연구」, 경남대 석사논문, 1983.
- 24) 백설희, 「도시가계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이



- 대석사논문, 1984.
- 25) 조희금,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형태 분석 — 대구시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제2권 1호, 1984, pp. 57-66.
- 26) 문숙재, 1985, pp. 237-268.
- 27) 박순희,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5.
- 28) Ferber, Robert, "Family Decision Making and Economic Behavior: A Review", Family Economic Behavior: Problems and Prospects ed., Eleanor B. Sheldon, Philadelphia, PA: J. B. Lippincott, pp. 26-61.
- 29) Hefferan, Colien,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 HERJ, Vol. 11, No. 1, pp. 47-55.
- 30) 김순미, 1987.
- 31) ———.
- 32) ———, p. 54.
- 33) 송영주, 1981.
- 34) 백설희, 1984, p. 41-45.
- 35) 김순미, 1987, pp. 54-57.
- 36) 김광석, 1975.
- 37) 박재윤, 1978, pp. 206-210.
- 38) 백설희, 1984, pp. 44-45.
- 39) 박순희, 1985, p. 40.
- 40) 김순미, 1987, pp. 46-47.
- 41) ———, p. 62.
- 42) 정영숙, 1983, p. 56.